

02

행복한 군포

유비무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군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08

책나라군포

'2017 군포의 책' 발표
성인·청소년·아동 책 각 1권씩

10

군포인터뷰

김진희·김무곤 작가와
5問(문) 5答(답)하다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 페이스북 facebook.com/gunpocity
- 블로그 blog.naver.com/o2gunpo
- 트위터 twitter.com/gunpocity

<군포소식> 정기구독 신청(무료)

☎ 군포시청 홍보실 031-390-0663



책·철쭉·행복·청렴도시 군포

책나라군포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02

2017 FEB
제 355 호

발행일 2017년 2월 1일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gunpo 군포시 홍보실

TEL 031-390-0663

WEB www.gunpo.go.kr

E-mail gunpo-city@nate.com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놀아요~

겨울방학 생태체험교실에 참가한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만큼이나 군포의 미래는 밝습니다



군포시청이 발행한 <군포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Safety

유비무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군포의 노력은 2017년에도 계속됩니다!

시민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행복의 시작은 안전한 생활이다. 나와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행복이라는 씨앗은 자라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군포의 노력과 도전은 올해도 계속된다.

정리 편집실



범죄·사고 대응 더 신속해져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 기반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스마트 플랫폼 기반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생활안전, 재난,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 인식, 지능형영상인식 등 10종의 CCTV를 비롯해 비상벨과 경고방송까지 총 13개의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8개로 나뉜 생활·안전 CCTV 관제화면도 하나로 관리하고, 군포경찰서와 군포소방서 등 4개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더 강화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이제 교통흐름, 재난사고, 범죄 발생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영상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관리·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 예방, 안전 시설물 관리 효율 향상, 생활 안전 강화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2월 중 이번 사업의 후속 조치로 '안심보행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2월 중 보급할 '안심보행서비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시민이 위급 상황을 느끼거나 겪을 때 특정 서비스를 시행하면, 시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신호 발생 시민 주위의 CCTV 4대를 활용해 집중 관찰·보호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상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정보통신과에 문의(390-0822)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제6회 군포시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군포시민 85.4%
'CCTV 설치, 범죄예방에 도움'



군포시가 지난해 시행한 '제6회 군포시 사회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6.7%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며, 85.4%는 CCTV가 실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CCTV가 시민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는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 내 800가구를 직접 방문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 조사(82개 항목)를 시행했으며, 결과 정리와 분석을 마친 12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 인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28만7천519명이었는데, 20~40대가 전체 인구의 48.1%에 달한다. 이처럼 젊은 도시이지만 많은 시민이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도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숲속의 웰빙도시(28.1%), 더불어 어우러지는 상생공존의 복지도시(27.9%)로 발전하길 희망하는 공동체 중심의 의식을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사회조사의 분석을 경인지방통계청에 위탁해 결과를 도출했으며, 보고서는 모든 부서와 동 주민센터 그리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제6회 군포시 사회조사 보고서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군포소개→통계정보→각종 통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시 기획감사실에 문의(390-0357)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인정한
안전 도시 군포
국민안전대상
'2016 우수 자치단체장상' 수상



군포의 안전함은 정부 조직인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민안전관리협회 경기도협의회로부터 국민안전대상 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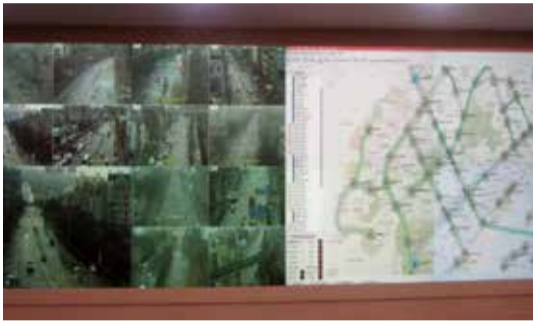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김윤주 군포시장은 안전시스템 강화 등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국민안전처가 12월 8일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 의하면 군포시는 전국 75개 시(市),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안전지수 7개 분야 중 5개에서 1등급을 받은 도시다. 7개 분야에서 안전지수 1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 시가 51곳(경기도에서는 12개 시·군)에 달하고, 1등급 분야가 3개 이상인 시는 군포를 포함해 6개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안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날 김윤주 시장은 "안전에 대한 관심,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은 꾸준해야 해서 늘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챙기고 있다"며 "항상 '지금보다 더 안전한 군포를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모든 교차로 교통신호 무선 제어

전국 최초 100% 시스템 구축... "운전자·보행자 모두 편리해져"



교통신호 무선제어 시스템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초고속 무선 LTE 통신망으로 무선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내 192개소에 달하는 교차로 전체 교통신호 무선 제어·관리 시스템 구축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그동안 교통신호는 현장에서만 제어할 수 있었으며,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능개선과 보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문제 발생 시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한 군포시는 교통시설물 이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적기 수리 및 부품 교체를 함으로써 문제 발생을 줄이고, 현장 상황에 맞게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제어해 차량 운행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불편하게 했던 교통신호 전기·통신선 매설과 교체를 위한 굴착공사도 이전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도심 전신주 등에 어지럽게 엉켜있던 전선도 줄일 수 있어 보행환경 역시 개선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시는 첨단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완료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량이 보급될 경우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진다고 말했다.

현승식 교통과장은 "일부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 시스템을 군포는 도시 실정과 특성에 맞게 전면 도입해 교통안전과 시민 편의를 대폭 향상했다"며 "군포경찰서와 협력해 출퇴근 교통난 감소, 교통사고의 빠른 수습 등도 추진함으로써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통과 390-0844

한 눈에 보는

GUNPO



김원섭 제21대 부시장 취임, "공약 이행 꼼꼼히 챙길 것"



제21대 군포부시장으로 김원섭 전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이 취임했다.

김원섭 신임 부시장은 1959년생으로 2016년 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과 인재개발원장을 지냈다.

김원섭 부시장은 지난 1월 2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윤주 시장님의 공약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경험을 살려 더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390-0164

군포시 생활법률·세무 무료 상담 만족도 조사 "도움 된다" 99%

시는 지난 1999년부터 매주 3회(월, 수, 금) 시청 2층 시민의 방에서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1회(둘째 수요일)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법률·세무 무료 상담을 시행, 2016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827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상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는데, 총 300명의 응답자 가운데 99.3%인 298명(많은 도움 202명, 약간 도움 96명)이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도 289명(96.3%)으로 조사돼 상담 시민 대부분이 시의 무료 법률·세무 상담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치행정과 390-0018

기동봉사반은 어려운 이웃의 가족 현장 출동해 생활불편 해소 지원

군포시 직소민원팀이 겨울철마다 어려운 이웃의 가족을 자처한다. 겨울철에는 특히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가정의 생활불편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소민원팀이 시행한 겨울철 이웃돕기 건수는 1천796건에 달하며, 292세대가 거동불편이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번 겨울에도 직소민원팀은 1월 16일부터 현장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 봉사는 3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390-0907

'군포, 재정운영 최우수 기초자치단체'

2015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군포시가 시민이 성실하게 낸 세금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사용해 재정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군포시는 전국 74개 시(市) 가운데 재정운영이 가장 뛰어나 장관 표창과 3억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앞서 행자부는 모든 자치단체의 2015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현황을 28개 지표로 나눠 분석했는데, 군포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남다르게 좋을 뿐 아니라 효율성 부분 역시 상위 20% 이내에 들어 최우수 재정운영 기관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부담이 증가함에도 채무 억제와 상환 노력으로 재정 건

전성을 높였고, 세출 부문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 지출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듯, 시민이 성실히 내준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2017년의 군포는 채무 0원 도시가 되는 만큼,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차입금 100억원을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 도시 부채를 전액 해소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를 통해 부채 이자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이 사라지고, 재정 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감사실 390-0047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군포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군포시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알려드립니다.

일반행정 분야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군포 전 시민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려금 30만원 지급 (대상자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지원금액 : 30만원(실비 30만원 미만은 실비 지급))	위생과 390-0165
신설되는 지방세 특례	•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 (취득·재산세 신축 : 10 → 50%, 대수선 : 50 → 100%) •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 전기차(취득세 140 → 200만원 공제 확대)·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 신설)	세정과 390-0540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 제공	•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 - 지방세 체납 외국인 중 일정금액 1년 이상 경과한 자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법무부장관)	세정과 390-0191

산업·경제 분야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연 2~4%대) 소액 금융 지원	지역경제과 390-0286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구직비용 지원 - 대상인원 : 1천명 ※ 도내 1년 이상 거주 만18~34세(중위소득 80%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금액 : 월30~50만원, 6~10개월간 최대 300만원 - 지원방식 : 카드(바우처) 형태의 사후적 지원	경기도 경제실 8030-2956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개선	•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내 감정 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경제과 390-0286

보건·복지·여성 분야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의 원재료명을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 - 식품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	위생과 390-0238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공공일자리 중 '시간제일자리' 신설 - 사업량 : 279명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근로조건 및 보수 : 주 20시간(1일 4시간 이상) / 월 67만6천원 * 근무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과 390-0675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위소득 200% 이하 난임여성 30명 • 지원내용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군포시보건소 협약 한의원에서만 가능)	보건행정과 390-8914

도시·교통·건설 분야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첨단 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 사업비 23억5천만원 (국비 9억4천만원, 시비 14억1천만원) ※ 2016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9억4천만원 확보 • 사업내용 - 교통 CCTV 16개소 추가 설치 - 주차정보시스템 설치 2개소 (시청 민원주차장,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 군포경찰서 112 상황실 연계 및 센터 장비 기능개선	교통과 390-0844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건축과 390-0483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	경기도 교통국 8030-3724

환경 분야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 2005년 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 판교제로시티 입주기업(중사자)	환경과 390-0542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 장치가의 약 10% 자부담액 전액 지원 - 평균 약 50만원 가량	환경과 390-054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 지역/사업량 : 31개 시·군 / 7,750대 (2017년) - 지원금액 : 총 16만원/대	환경과 390-0542

재난안전 분야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 연립·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230-287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 30층 이상 49층 이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230-287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안전도시과 390-0950

더욱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땀과 열정을 쏟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인터뷰]

체불임금 없는 도시, 군포시가 먼저 만들겠습니다.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이석진 의장

Q. 관련 조례의 발의와 제정 배경은?

A. 최근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이랜드 사태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불 사건이 안 그래도 추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역시 문제가 되고 있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Q. 군포시에서 위 조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까요?

A. 군포시가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에서부터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불서약서를 군포시에 제출하게 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작성하게 하는 등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지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지역일자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올 한 해 군포시의회가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A. 청년실업률 증가, 노인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정책 등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기능을 더욱 공고히 해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Q. 군포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A.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군포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에도 '신뢰받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란 비전 아래 시민 여러분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의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 단신

군포시의회 시의원 1일 명예교사 특강

박미숙, 성복임, 이석진, 김동별 의원
특강 릴레이 이어져

군포시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매년 시의원 1일 명예교사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의원 1일 명예교사 체험활동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바른 민주시민의 자세,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군포시의회 박미숙 의원은 1월 16일 흥진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 특강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1일 명예교사 특강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시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나갔다.

성복임 의원 역시 같은 달 16일 용호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 특강을 진행했다.

성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시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 다소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해 영상자료가 포함된 강의자료를 직접 제작해 열정적인 강의를 선보였다.

한편, 군포시의회 이석진 의장은 1월 19일 당정중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 의장은 학생들에게 본인의 학교생활을 들려주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해 미래를 위한 꿈 키우기, 우리 사회에서의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나갔으며 강의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해주는 등 강의 내내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21일에는 김동별 의원이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 특강을 진행했다.

학교 다목적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특강은 교내방송을 통해서 전교생이 시청했으며, 김동별 의장은 강의에서 "진실한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의회사무과 390-8713

군포로 향하는 관문

지하철 1, 4호선 금정역

글 김은 / 사진 주효상

금정역과 그 주변은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붐비는 군포의 대표적인 변화가다.

펼떡이는 활어와 같은 생동감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금정역 주변은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키는 우리네 삶의 현장이다.

원래 금정(衿井)은 별판에 있는 마을이라 어느 곳이나 파면 물이 잘 나와 여인들의 옷깃을 적신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 1988년 10월 25일 서울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개통되고, 1994년 4월 1일 4호선이 직결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1호선 경부선과 4호선 과천선·안산선이 합류되는 역으로, 1호선 명학역과 군포역 사이, 4호선 범계역과 산본역 사이에 있다.

군포시의 교통 핵심지인 금정역은 역 서쪽으로 상업지구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 역 동쪽에는 대규모 오피스 밀집 지역이 조성돼 있고, 군포로(軍浦路) 건너에는 크고 작은 기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들로 금정역은 군포에서도 유동인구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산본시장을 포함해 크고 작은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 언제나 활기가 넘쳐흐른다.



금정역 이용 승객(1일 기준)

- 승하차 6만명
- 환승 포함 26만명

금정역 열차 운행(평일 기준)

- 1호선 254회(상·하행)
- 4호선 264회(상·하행)

출처 :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산본시장



책나라군포 '2017 군포의 책' 발표

김무곤·김진희 작가 책 선정... 성인·청소년, 아동 책 각 1권씩



책나라군포의 시민들이 올해 온전히 사랑할 책은 2권이다.

군포시는 지난 1월 4일 '2017 군포의 책'으로 김무곤 작가의 <휘둘리지 않는 힘>과 김진희 작가의 <노잣돈 값기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초부터 두 달간 2017년도 군포의 책 후보 도서 추천을 받은 결과 일반·청소년 분야에서 228권, 아동 분야에서 90권의 추천을 접수(중복 추천 제외)했다.

이후 군포의 책 선정위원회 심의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시는 최근 성인·청소년 분야에서 김무곤 작가의 책을, 아동 분야에서 김진희 작가의 책을 올해의 책으로 확정했다.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은 "독서문화운동 활성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청소년과 어린이 분야에서 군포의 책을 한 권씩 선정했다"며 "이제 6개월간의 '2017 군포의 책' 찾기 과정은 마무리됐지만, 새로운 독서문화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시는 1월 24일 개최한 2017 군포의 책 선포식을 기점으로 연중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포는 2011년부터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김려령의 <가시고백>, 이순원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이종수의 <그림문답>,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배유안의 <뽕떡>을 군포의 책으로 선정해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책읽는정책과 390-0905

이달의 추천도서



01 아동 도서
엄마, 이렇게 말해주세요

글 다케우치 에리카
출판사 카시오페아

20년간 9000명의 아이를 지도한 저자가 0세부터 6세까지 아이의 발달단계에 꼭 익혀야 하는 발달과업과 이를 도와주는 '부모의 말을 담았다.'



02 청소년 도서
푸른기차의 정거장

글 이순원
출판사 보랏빛소

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둔 준호가 시각장애인의 사진여행에 도우미로 참가하면서 영수를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성장동화이다.



03 성인 도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하든

글 콰타스틱
출판사 책들의정원

파워블로거인 저자가 15년간 둘러본 나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23곳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가 직접 여행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단신뉴스

2017 1기 100일 책읽기 프로젝트

- 일시 2월 6일(월)~5월 16일(화) 100일간
- 대상 군포시민
- 내용 - 100일 동안 1일 15p. 이상 책읽기
- 100개의 글쓰기(좋은 구절 옮기기 독서후기 등)
- 100일 동안 여행계획 세우기 또는 가고 싶은 여행지 버킷리스트 작성
- 신청 군포시 100일 책읽기 프로젝트 온라인 카페 가입
(<http://cafe.naver.com/gunpo100reading>)
- 문의 책읽는정책과 390-0902

<밥이 되는 인문학> 지혜와 감성의 융합

<2월>

- 일시 2월 23일(목) 14:00
- 장소 군포시청 대회의실
- 강사 김형철 교수
- 주제 인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의 힘

<3월>

- 일시 3월 23일(목) 14:00
- 장소 군포시청 대회의실
- 강사 김경집 작가
- 주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적 성찰은 무엇인가?
- 문의 책읽는정책과 390-0902

군포시 중앙도서관 공간재배치, 설문 응답자 81% 긍정적

"많은 사람이 모든 공간을 층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군포시 중앙도서관 증축 및 공간 재배치 이후 시행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가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보통'이라는 평가까지 포함해 총 81%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중앙도서관에 의하면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40일간 진행됐으며, 1천명의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해 739명의 응답을 회수했다.

이 설문에서 이용자들은 시설 증축 및 재배치로 '자유롭고 쾌적한 분위기(45%)', '책 읽는 공간 증가(24%)' 등을 좋아진 점으로 꼽으며 호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난방 및 소음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발전 방향을 수립해 더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중앙도서관 390-8871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모집합니다

시민의 열정과 끼로 만들어가는 군포 『생·동·감』



(재)군포문화재단은 군포지역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에 참여할 시민동호회를 2월 1일(수)부터 3월 17일(금)까지 모집한다.

군포생동감은 시민들의 생활문화동호회의 활성화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생활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문화와 문화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군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다. 2016년 현재 64개 동호회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활성화 대회' 본선에 올라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생활문화진흥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크게 주목 받고 있다.

군포생동감에 가입한 동호회에는 군포생동감 네트워킹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군포생동감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음악, 국악, 무용, 회화, 서예, 독서 등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동호회 중 회원의 50% 이상이 군포시민인 동호회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포생동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달 17일까지 군포문화재단 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군포생동감 온라인카페 (<http://cafe.naver.com/gunpolan>)에서 동호회 등록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3월 중 온라인카페 또는 개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재)군포문화재단 390-3071~3

단신뉴스

2월 여담시네마 상영 안내

- 작품명 러브액츄얼리(Love Actually, 2003)
- 일시 2월 2일(목) 14:00
- 장소 군포시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
- 공연장르 멜로, 로맨스, 드라마
- 관람연령 15세 이상 관람가
- 관람시간 130분
- 공연료 무료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2017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가 모집

- 모집기간 2월 2일(목)~2월 말
- 모집대상 만 13세~18세 이하 중·고 청소년
- 인원 각 프로그램 당 20명 내외
- 접수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FAX 접수(031-395-1449)
 - E-mail 접수(gpyouth1400@naver.com)
 - 방문접수(수련관 2층 사무실 방문)
- 문의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90-1421~5

제 3기 대학생 멘토단 모집

- 일시 2월 17일(금)까지
- 대상 - 2·3·4년제 대학(원)생
 - ※휴학생 신청가능(○)
 - 청소년의 진로멘토가 되어 줄 책임감 있는 대학(원)생 누구나
 - 멘토링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 내용 군포시 중·고등학교에서 일일 진로교사
- 모집인원 2·3·4년제 대학(원)생 30명
- 문의 군포시진로체험지원센터 390-1427

진로탐색&직업체험 프로그램

'드림하이' 참가자 모집

- 일시 2월 20일(월)~3월 10일(금)
- 대상 관내 중학생 청소년(20명)
- 내용 진로탐색 검사, 희망직업 탐색, 직업가치관, 직업체험 활동 등
- 문의 군포시진로체험지원센터 390-1429

시민나눔사업 '문화가 있는 날'

- 일시 2월 22일 10:00~12:00
- 장소 여성회관 1층 여담 도서관
- 대상 군포시민
- 내용 그림책과 함께하는 '고조선' 이야기를 담다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2월 G시네마 WINTER MOVIE '세계 영화감독 열전' 무료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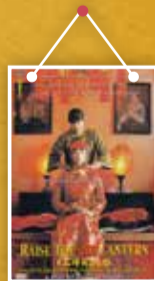
아비정전
2월 6일(월)
감독 왕가위
장르 멜로
등급 15세 관람가
시간 100분



화양연화
2월 13일(월)
감독 왕가위
장르 멜로
등급 15세 관람가
시간 97분



붉은 수수밭
2월 20일(월)
감독 장예모
장르 드라마
등급 15세 관람가
시간 90분



홍승
2월 27일(월)
감독 장예모
장르 드라마
등급 15세 관람가
시간 123분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 (재)군포문화재단 390-3071~3

5 문 5 답 김진희 · 김무곤 작가와 五問 五答하다

‘2017 군포의 책’ 선정

그토록 기다리던 ‘2017 군포의 책’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 초부터 두 달간 후보 도서 추천을 받은 결과
김진희 작가의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아동 분야)와
김무곤 작가의 <휘둘리지 않는 힘>(성인·청소년 분야)으로 결정됐다.
반가운 얼굴, 2017 군포의 책 작가를 만나보자.

정리 김은



김진희 작가



Q&A



김무곤 작가

‘2017 군포의 책’ 후보에 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행복했고, 더불어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좋은 책들과 함께 후보가 되어 영광이었죠. 그런데 ‘2017 군포의 책’으로 선정되기까지 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2017 군포의 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쁜 영광입니다. 특히 군포시는 시장님의 주도로 ‘책의 나라를 꿈꾸는 도시’로 유명하고, 책 읽기와 생활운동 실천을 같이하는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 등 많은 독서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화도시이자 지성의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군포시가 뽑는 책에 많이 부족한 제 책이 선정돼 더욱 영광이고, 부끄럽고, 감사로 가슴이 벅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깊어야 할 ‘노잣돈’이 있고 그 ‘노잣돈’을 되돌려주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저서를 집필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희로애락,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 등 세상의 모든 이치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의 원천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속에서 발견했고,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유혹과 욕망도, 세상에 맞서서 나를 지킬 무기도 결국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훈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품의 주인공인 동우가 마지막에 선택하고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 건 옳은 말을 해서 마음이 꽉 찼기 때문 인데요. 옳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 비로소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 용기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줄 거라 믿거든요.

작가님의 책을 읽고 독자들이 어떤 점을 느끼길 바라나요?

각박한 경쟁사회일수록 ‘함께 살 줄 아는 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공존과 소통의 첫걸음은 ‘배려’입니다. 배려는 자기 것을 먼저 내주고 베푸는 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빡’이나 ‘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양보해서, 남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자신의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큰 힘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며, 그것이 바로 관계와 소통과 공존의 힘이 아닐까요?

‘학교폭력’이라는 소재만이 아니라 진실한 양심과 우정, 관계맺음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의 ‘노잣돈’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군포의 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 책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게도 몰입하지 마세요. 이 책을 통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포 시민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조금이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2017 군포의 책’으로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를 선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가 올 한해 군포시민 여러분께 책 읽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고 많은 지도와 질책 부탁드립니다. 품격과 전통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군포시민 여러분이 제 책에 눈길을 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놀자~

초막골의 자연물로 놀기



초막골생태공원에는 어떤 동식물이 살까? 그들의 겨울나기는 어떤 모습일까? 군포시 자연생태계의 보고, 초막골생태공원이 어린이들을 위해 상시 생태체험교실을 개설했다. 즐거운 놀이터가 된 초막골을 들여다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주효상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초막골생태공원의 겨울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가족 위한 생태체험 교실



“목련과 산수유, 칠엽수의 겨울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호랑나비, 유리산누에나방은 어떻게 겨울나기를 할까요?”

군포의 새로운 명소가 된 초막골생태공원이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초막골생태공원의 생태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4배까지 확보해 올해부터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7~8세반, 초등반, 주부반으로 나뉜 연령에 맞는 생태놀이와 약초교실 등 본격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지난 1월 11일부터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초막골생태공원의 겨울이야기'가 시작돼 군포의 자연 생태계에 관해 전문성과 재미를 더한 유익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초막골생태공원 생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해 32명의 수료생을 양성한 바 있다.



홈페이지 통해 쉽고 편하게 참여신청 가능



초막골생태공원은 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생태 체험 프로그램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gunpo.go.kr/main/chomakgol/index.jsp)를 열었다.

2월에는 '겨울 생태 민속놀이'가 진행되는데, 이 수업은 자유롭게 공원을 탐방하면서 깊은 겨울잠에 빠진 동물은 누구인지, 들꽃들은 어떤 모습으로 겨울을 나는지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재미난 생태민속놀이와 함께 대보름을 맞이해 부럼을 깨고 남은 견과류들을 실로 꿰어 배고픈 겨울새들에게도 나눠주는 행사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초막골생태공원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경·생태 대학'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월부터 4월까지 총 12주 동안 생태계의 이해, 생물 다양성, 수목 관리, 조경기능사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공원과 390-4053

지하보도 미술관 조성한 주민자치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지하보도에 공유 미술관 조성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 앞 지하보도에 시민 공유 미술관 '우리 동네 작은 미술관'이 조성됐다.

지난 1월 12일 행정복지센터에 의하면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하보도 미술관은 군포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해 완성했다.

지하보도 입구에 총 12개의 고정식 액자를 설치, 누구나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개방한 이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공유를 통한 주민 화합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첫 전시 작품을 지난해 12월 청소년 전용 카페가 설치된 지하보도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초등

학생들의 그림 24점(액자 1개에 그림 2점)으로 선정했다고 행정복지센터는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여간 행정복지센터 앞 지하보도 내부를 전면 개보수해 청소년 전용카페, 턴터 2호점을 개소한 바 있다.

김용흠 행정복지센터장은 "유희공간처럼 여겨지는 지하보도를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문화 예술을 누리는 장소로 바꾸려 주민자치위원들과 협력해 개방형 미술관을 조성했다"며 "작품을 공유하고 싶은 미술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390-3613

쓰레기집터 정리해 주민 보호

광정동, 저장강박증 주민 집 청소 동네 환경 개선



광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17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자신과 이웃을 모두 괴롭히던 주민 A(67세) 씨의 집을 청소했다.

A 씨는 집 안 가득 쓰레기나 재활용품 등을 쌓아 놓아 현관문조차 닫히지 않을 정도여서 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다.

이에 광정동은 안전사고 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A 씨를 오랫동안 설득, 이번에 협의체와 무한돌봄센터의 도움을 받아 환경정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총 5톤 가량의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치워졌으며, 광정동은 청소와 소독을 병행해 A 씨와

이웃, 동네를 위한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최근 지역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는 집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가정을 찾아 홀몸 어르신을 만나 설득한 끝에 청소를 시행한 것이다.

정형모 광정동장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자기 일처럼 청소와 소독을 시행해 줘 사고 없이 청소가 끝났다"며 "이웃의 일에 가족처럼 나서준 광정동 주민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민센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정동주민센터 390-8613



통장 공개모집 결과 공고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행한 통장 공개모집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오금동

- 통별 18통
- 성명 이윤덕(여)
- 관할구역 군포시 광정로 25-20 퇴계주공아파트 363동~365동
- 위촉기간 2017. 1. 19~2020. 1. 18

재궁동

- 통별 14통
- 성명 최윤자(여)
- 관할구역 군포시 산본로 296 무궁화주공아파트 111동~112동
- 위촉기간 2017. 1. 12~2020. 1. 11

통별 22통

- 성명 이영자(여)
- 관할구역 군포시 산본로 299 총무2차 주공아파트 201동~202동, 상가
- 위촉기간 2017. 1. 5~2020. 1. 4

광정동

- 통별 30통
- 성명 이정숙(여)
- 관할구역 군포시 고산로 643번길 9, 우방목련아파트 1236동~1237동, 1246동~1247동
- 위촉기간 2017. 1. 21~2020. 1. 20



동네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널리 알리고 싶은 동네의 자랑, 가슴이 따뜻해질 아름다운 미담 등 행복한 우리 동네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군포소식〉이 이웃사촌들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 접수 이메일 gunpo-city@nate.com
- 문의 홍보실 390-0663

처갓집 김치 예찬

김동국 | 오금동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며칠 추웠다가 며칠은 따뜻하기도 하고, 삼한사온을 실감하게 하는 날씨다. 겨울이면 화젯거리 중의 하나가 김장김치다.

나는 결혼 후 줄곧 처갓집에서 보내준 김치를 먹고 있다. 맛벌이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처갓집 김치만큼 맛있는 김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이유다.

가끔 처갓집에 내려가면 앞마당에 묻어 놓은 김칫독에서 꺼내놓는, 그 김치는 별미 중의 별미다.

그렇게 양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시원한 맛이 일품이고, 가끔 올라오는 갈치 덩어리를 만날 때는 큰 횡재를 한 듯하다. 이렇게 특별한 맛의 김치다 보니 귀가할 때는 반드시 김치를 한 통씩 차에 싣는다.

처갓집에 내려가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김치를 택배로 보내주신다. 며칠 전에도 큼지막한 라면상자에 배추김치, 파김치, 부추김치에 콩잎김치까지 보내주시고는 문자를 보내셨다.

“김치 보냈네, 김 서방 좋아하는 콩잎도 함께 넣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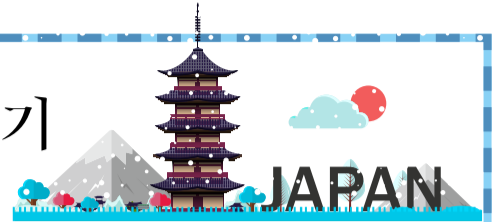
정겨운 장모님 말씀이 귓전에 들리는 듯하다. 곧바로 회신을 드렸다.

“장인·장모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츠기시 여행기

라세림 | 궁내중



작년 7월 무더운 여름날에 '군포시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외국인이라는 벽을 깨고 친구 관계를 맺은 일본 아츠기시 언니들을, 올해 친바람이 생생 부는 1월에 다시 만나게 됐다. 해외 자매도시 5박 6일 방문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길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많은 추억을 쌓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다. 홈스테이할 준비가 된 집에서 이야기하고 자고 먹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한 사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다. 젓가락을 놓는 방법 같은 조그만 문화에서 역사 속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내 지식의 폭도 더 넓어진 느낌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 하지만 그곳에서 쌓았던 추억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특히 나나사와 수련원의 C동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 때문에 C동에서 잤던 나와 친구들이 겁을 먹고 화장실을 단체로 가거나 옹기종기 모여 본관 공중목욕탕을 덜덜 떨면서 갔던 기억이 가장 특이하고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이런 추억들 때문에 마지막 날 홈스테이 가정과 헤어질 때, 아츠기시 시청이 떠나가도록 운 것 같다. 빨리 출발해야 한다는 버스 기사님의 말이 너무 야속했다. 결국은 출발 시간이 아주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츠기시의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조만간 또 일본 갈 테니까 기다려줘! 한국의 문화를 더 알려주고, 일본의 문화를 더 배우러 갈 거니까!

영어캠프는 정말 재미있었다

김민성 | 수리초

얼마 전 4박 5일간 군포시 청소년 영어 캠프에 갔다 왔다.

사실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갔다.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영어 캠프 참가 신청한다고 했다. 우리 집은 그런 거에 정말로 운이 없어서 당연히 안 걸릴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축하한다, 당첨됐다”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진짜 망했다고, 방학의 한 주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생각했다.

첫날은 짐 풀고, 안전 수칙 듣고 레크레이션 하니 끝났다. 다음날부터 수업했다. 문법과 영어게임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카이스트 멘토 선생님과 같이 하는 영어 숙제였다. 물론! 멘토 선생님이 재미없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반대로 선생님은 매우 좋았다.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았다. 그날 밤 11시까지 해서 끝났다. 셋째 날에는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서 한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노래로 주제를 정했다. 강남스타일, 아리랑, 애국가, 판타스틱 베이비로 했다. 반마다 다른 종류를 준비해서 재미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카이스트에 들렀다. 오리도 보았고 고양이도 많았다. 나는 카이스트가 동물농장 같았다. 이곳은 밥도 맛있고 시설도 엄청나게 좋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에 다니고 싶다.

이번 영어캠프는 정말 재미있었다. 숙소가 따뜻하고 이불도 좋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뱀, 병어리 장갑, 구두, 나비, 하트, 망치, 사과

수수께끼 2017 군포의 책 작가는 'OOO', 'OOO'이다. ☎ 10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2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군포소식>이 시민 원고를 기다립니다.

제출방법 이메일 gunpo-city@nate.com, 매월 접수

원고분량 150자 이상 900자 이내(글자 10포인트 기준), 시는 자유

문의 군포시청 홍보실 390-0663

※ 원고가 게재되면 문화상품권(3만원) 지급, 사전 연락 없음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동의 안함

군포,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대출 가능 금액 10억원 증가



군포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1억원 증액, 총 4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이에 따라 군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시가 4억원을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하면 모든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별도의 담보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 대비 10배까지만 보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소 15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30억원 규모의 보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시 출연금이 1억원 증액돼 총 40

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래서 발급 기간은 연중이지만 자금이 소진되면 보증이 중단되니 유의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군포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387-3525, 내선 105) 또는 군포출장소(매주 목요일만 운영,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내, 381-7728)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바란다"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상이 되지만 연체 대출금이 있거나 휴업 중인 업체 등은 신청이 안 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390-0267

지역 사업체 1만7천854개 전수조사 추진

2017 사업체 조사 2월 6일부터 한 달간

군포시는 오는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통계청과 함께 지역 내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한다.

사업체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통계조사로, 그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경제·사회현상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포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1만7천854개 사업체로, 조사 요원이 각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표(총 16개 항목)에 의거 면접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감사실 390-0357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 2017 운영인력 모집

지역사회형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인력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채용인원 3명
-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 근무예정지 군포문화예술회관
- 채용분야 음악감독 1명, 코디네이터 1명, 주강사(바이올린) 1명
- 접수기간 2월 3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gunpo_arts@naver.com) 접수
-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390-3533

군포일자리센터 2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성신화학(주) 당동공장	군포시 공단로 39-5 (당동)	플라스틱 사출 성형	영업관리 1명	평일 08:30~19:00 토요일 08:30~15:30	연봉 2,400만원	031-455-1134
군포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군포시 산본로 322,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층 (금정동)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청소년지도사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2,200만원	031-390-1452
(주)바이온텍	군포시 공단로 298-15 (금정동)	의료기기, 정밀기기, 정보통신기기 제조	고객 모니터 요원 1명	주5일 09:00~18:00	월급130만원 (수당 별도)	031-450-9974
(주)내외정보기술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IT밸리 B동 2001호 (당정동)	ERP프로그램 개발 공급 컨설팅	IT기술전문가 3명	주5일 08:30~18:00	연봉 2,300만원	031-447-4477
(주)샤넬에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7 (당정동)	마스크시트팩 생산	화장품 생산사원 7명	주5일 09:00~18:00	연봉 2,400만원	031-444-3707
여수룬 어린이집	군포시광정로 25-57 (금정동)	어린이집 운영	조리사(부) 2명	주5일 10:00~16:00	시급 7,900원	031-395-4168
보람요양원	군포시 고산로 211번길 31, 성원프라자 4층 (당정동)	노인 복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명	주6일 09:00~09:00 (하루 근무 후 이틀 휴무)	월급 140만원	031-477-5788
강남제비스코 (군포)	군포시 농심로 8 (당정동)	도료 제조 판매 (페인트, 신나)	보일러 설비원 1명	주5일 08:30~17:30	연봉 2,700만원	031-428-0622
(주)화성아이원	군포시 공단로 298-20 (금정동)	냉장고 도어 힌지	제품 조립생산자 2명	주5일 08:30~17:30	시급 6,470원	031-451-4191
강동무역	군포시 대야2로 120, 대야프라자 102호 (대야미동)	임상병리 기술 및 사무	영업사원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2,000만원	031-438-4995

※ 2017년 1월 18일 기준 일자리 정보로 조기 구인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 정보는 군포일자리센터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아이가 있는 풍경

“하나보다
둘이 더 — 좋아”

한재욱 | 재궁동



서진(1살)이와 윤서(8살)

언제 임신했나 싶었는데 어느새 둘째를 낳았다. 또 언제 낳았나 싶었는데 벌써 100일이 흘렀다. 세월이 빠르다지만 임신해서 열 달을 채우고, 아기 낳고, 100일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화살 한번 쏜 것처럼 빨라서 새삼 놀란다.

사실 처음에는 둘째를 가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한 명도 힘든데...’ 하면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한 번씩 자신은 왜 동생이 없느냐면서 “어디 가서 사 왔으면 좋겠다”고 하던 딸애는 아기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른다. “엄마가 힘들니까”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일을 도와주겠다고 할 때는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나도 남편도 자식이 한 명 더 생기면 책임감도 더 생기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았다. 첫 아이한테 동생을 선물한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비싼 장난감이나 옷을 사 주는 것보다 제일 값진 선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힘든 일보다는 기쁨이 자꾸만 더 생긴다. 옷을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 딸애가 아기 기저귀 갈아주려고 이마에 땀방울을 맺혀가며 애쓰는 것도 귀엽고, 내 엄지손가락을 아기 손에 쥐여 주면 얼마나 꼭 쥐고 놓지를 않는지 그냥 몽클해지곤 한다.

첫애 때와는 달리 능수능란하게 아기를 안아주고, 트림을 시키고, 목욕을 시켜주며 너무나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 웃음이 난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생겨서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삶의 의욕이 더 생기고 힘이 난다.

지금 우리 가족은 “하나보다 둘이 더 좋아”라는 말을 달고 산다. 자꾸 웃어서 그런지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웃게 되는 하루하루다. 아기 덕분에 행복이 더 커져서 감사할 뿐이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새 생명으로 인해 힘을 내고 희망을 품게 돼 감사하다.

출생의 기쁨 육아의 지혜, 함께 나눠요

군포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시정소식지 <군포소식>을 통해 출생의 기쁨, 육아의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 아이를 만난 그날의 특별한 기억, 우리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육아 비법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분들의 개성 넘치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군포소식에 여러분의 출생·육아 소식을 게재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기고)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있는 풍경, 함께 만들어가요

- 참여방법 이메일(gunpo-city@nate.com, han3142@korea.kr)로 전송
※ 매월 15일까지 원고(400자 이상, 1,000자 이하)와 사진(가족 또는 아이 사진) 발송
- 게재방법 군포소식 15면에 게재, 매월 1회 발행
- 기고 선정 내부 기준에 의해 한 달에 1~2건 선정
※ 기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문의 홍보실 390-0663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2월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산본보건지소는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시

구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내용
기본과정	매주 월, 금 (10:00~11:20 14:00~15:20)	군포시민	•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이론 • 심폐소생술 실습 • 심장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장소 산본보건지소 대교육실 (3층)

• 강사 산본보건지소 응급구조사

• 신청방법 선착순 전화신청 390-8961, 8978



단신뉴스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일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 장소 산본보건지소 2층 금연상담실
- 상담 전문 금연상담사
- 내용 금연 상담 서비스, 금연보조제 지원, 일산화탄소 측정 및 소변검사 등
- 이용방법 산본보건지소 2층 금연상담실 방문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1, 8930, 8962

고혈압 건강교실

- 대상 군포시민 약 30명
- 시간 2월 매주 수요일 10:00~11:00
-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교육실
- 방법 예약제 운영(전화 및 방문 예약)
- 내용 고혈압 영양 및 질환 관리 등
- 예약 산본보건지소 390-8951

당뇨병 건강교실

- 대상 군포시민 약 30명
- 시간 2월 매주 금요일 10:00~11:00
-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교육실
- 방법 예약제 운영(전화 및 방문 예약)
- 내용 당뇨병 영양 및 질환 관리 등
- 예약 산본보건지소 390-8951

구강보건 교육

- 대상 군포시민
- 기간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4:00~15:00
- 장소 산본보건지소 2층 구강교육실
- 신청 예약제 운영(전화 및 방문 신청)
- 내용 영상 시청, 불소용액·치솔세트 배부 등
- 예약 산본보건지소 390-8928, 8968

치매 선별검사(기억력 검사)

- 일시 매일
-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 장소 산본보건지소 치매상담실
- 방법 1차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 소득 기준 확인 후 병원 정밀검사 의뢰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84

치매 예방교육(치매 조기발견 교육)

- 일시 2월 1일(수), 매월 첫째 주 수요일(10:00~11:30)
-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 장소 산본보건지소 대교육실
- 내용 치매의 정의, 원인, 예방활동 등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76

치매 진단 후 교육

- 일시 2월 15일(수), 매월 셋째 주 수요일(10:00~11:30)
- 대상 신규 치매 진단 가족
- 장소 산본보건지소 소교육실
- 내용 치매에 대한 이해와 문제행동 대처법 등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75



웃음공연 동호회 <감.탄.사>

꽃분홍 조끼 입고 토끼 헤어밴드 하고 “하하하!”

군포시여성회관 지하 1층 음악실에 모인 중년 부인들의 ‘포스’가 남다르다. 이찬희 지도교사가 경쾌한 음악을 틀자 동시에 단체 율동을 하며 “하하하!” 소리 내 웃는다.

다음은 ‘단체 1분 트레이닝’ 시간. “이번엔 누가 앞장서 볼까요?” 이찬희 교사의 한마디에 한 주부 회원이 밝은 표정으로 얼른 손을 든다.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하하하!” 앞에 나선 회원이 힘차게 앞서 외치자 다섯 명의 주부도 따라 하며 함께 웃었다.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 나오면 싹 잊게 돼요. 매주 연습시간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연습하던 김외숙(68, 산본동) 씨

군포엔 조금 특별한 동호회가 있다. 주부 10여 명이 모여 복지시설, 공원 등을 돌며 각종 노래와 율동, 웃음공연을 한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웃음 전하기’.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 가진 것에 감사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라’ 등 ‘감사’의 소중함을 한 목소리로 역설하는 이들은 행복동아리 <감.탄.사>다.

글 노경희 / 사진 주효상

는 <감.탄.사>의 회장이다. 이 동호회가 만들어진 때부터 함께 한 김외숙 씨는 “회원 모두 리더십 있고 성격이 좋아 회장직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며 웃었다.

2015년 1월 탄생한 <감.탄.사>는 회원 15명이 40~60대 전업주부들로, 서로 매우 돈독한 사이다. 매주 1회 두 시간 정도 진행되는 연습시간이 아니어도 매일 단체 문자를 주고받으며 일상을 공유한다.

복지관과 공원 돌며 매주 웃음 치료 공연

이렇게 매주 연습한 공연으로 각종 무대에 오르고 있는 <감.탄.사>는 한 달에 한 번 당동 ‘양지의 집’과 군포시정신보건센터에서 웃음공연을 펼친다.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엔 군포시 중앙도서관과 능안공원을 찾아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이영조(57, 궁내

동) 씨는 “복지관이나 공원 등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은 대개 굳어 있다. 그러다가도 우리의 공연을 보고는 활짝 웃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밝은 마음과 표정으로 사는 게 만병통치약인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탄.사>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입을 모은다.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함께 외치고 손뼉 치며 울리는 경쾌한 웃음소리가 군포 시내 곳곳에서 오래도록 퍼지길 기대해본다.

동호회 가입 문의 이찬희 010-9971-4500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군포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함께 느껴요)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위기가정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 군포시무한돌봄센터



군포시무한돌봄센터는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정 및 개인의 상황 극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시 센터와 북부, 남부네트워크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례관리사들이 활동 중이다.

2016년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긴급지원 대상 가구, 기초생활수급 지원 탈락 가구 등 위기가정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예

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통합사례관리 절차는 예비대상자 접수 뒤 해당 가구의 위기와 욕구 조사 과정을 거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 종결 이후에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방문형서비스 사업을 통해 돌봄, 의료(보건) 상담 및 관련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 2회 현황조사와

모니터링을 거쳐 센터와 연계된 종합사회복지관들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협력해 위기 가구에 대한 보호 방안을 구축·지원한다.

군포시무한돌봄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군포시무한돌봄센터, 북부네트워크(395-3679), 남부네트워크(399-2270)로 지원 문의하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